

목양칼럼

시속 1675km로 달린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차는 일본의 자기부상열차 “마그레브” 라고 합니다.
 시험주행에서 시속 603km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상황에 따라 700~900km, 기차보다 조금 더 빠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시속 1675km로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달리고 있어서인지 아무도 그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는 평생을 순식간이라 표현하고 있고, 일생을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세월은 그냥 날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몰고 다닙니다.

세월과 함께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고, 홍안(紅顏)이 노안(老顏)이 됩니다.

“내 청춘 돌려도!”

아무리 외쳐도 세월은 싱긋 웃고 여전히 제 갈 길 갈 것입니다.
 세월이 제아무리 빠르다 하여도 세월에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법.
 세월의 속도로 세월과 동행하며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서점에서 일할 때 책값을 묻는 손님에게 1달러라고 답했습니다.
 그 손님이 책값을 깎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1달러 15세트라고 했습니다.
 어찌 책값이 더 올라가느냐는 손님의 항변에
 “당신이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기 때문” 이라고 답변하였답니다.

2018년, 1월의 시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시속 “1675km” 로 달리는 지구에서,
 평생을 “순식간” 으로 날아가는 세월을,
 불필요한 것에 소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시간에서 잘 살아야 영원에서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Q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교부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중국어 찬양대 지휘 / 윤원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월 28일
 제 44-4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6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장봉석 장로 3부 / 박영권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이사야 55:8-9	사회자
찬양 CHOIR	영광의 새노래 주는 왕이시다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다르다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4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52 / 1,2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일예배 (2,4부)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고국환 장로 4부 / 송동울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549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이사야 55:8-9	사회자
찬양 CHOIR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영원히 찬양 드리세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다르다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그 사랑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제 2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퀵장 바이블 칼리지(QBC)
오후 2:15-3:15

교회설립 44주년 기념 장학금
신청기간: 1/22(월)-2/18(주)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오후 8:00 (1/31/18)	사회: 오인수 목사
찬양	베리타스 경찬팀
성경봉독	사회자
	마태복음 27:45-50
말씀	오인수 목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1월 전진의 달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31(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2/4(주) 선교회 월례회
2/7(수) 청장년부 헌신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2/9(금) 구역 예배
2/17(토) 한국학교 개강	2/19(월)-3/31(토) 사순절 새벽 기도회

알림

- 퀵장 바이블 칼리지(QBC)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후 2:15-3:15
2) 장소- 1반: 70대 이상 선교회-친교실, 2반: 60대 선교회-고등부실, 3반: 50대 선교회-유년부실, 4반: 40대 선교회-중등부실, 5반: 청장년부-유아부실, *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대심방일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NJ1, BMT, F11
2교구: F6, SI, F8 3교구: LN1, BSI, 3FM2 4교구: WH1, F4, LI2
- 장학금 신청 안내**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1) 대상: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교인)
2) 신청기간: 1/22(월)-2/18(주) 3) 신청서: www.kapccq.org 에서 download 하여 제출
4) 문의: 채현주 권사, 박정봉 집사
-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기간: 2/19(월)- 3/31(토) 오전 5시 45분
* 교통편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교구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3(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유초등부 (다음주: 영아, 유아, 유치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계시광 집사, 계화자 전도사

새가족

김 화 (청장년 2F16, 김승윤 - 영아) 김초연 (청장년 2F16, 류진서 - 영아)
이차돌 (청장년 3FH, 이아나스타샤 - 청장년, 이아리 - 영아, 이미아 - 유아)
마건욱 (청년대학 1Y1) 전순애 (마르다 2F12) 이운주 (청년대학 4Y1) 김석훈 (청년대학 1Y1)

교우소식

소 천 정미정 집사의 시모 (임화순 집사 3F1)께서 1/22(월)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자

주 / 배희정 이화자 이안식 장세훈 장영오 조경옥 전성호 전광인 배인구 이영재 윤자숙
월 / 황복순 길학문 길길자 민준선 전광인 화 / 남주인 영미라티물 차문희 강혜영 김지은
수 / 남주인 윤엔지 남형욱 김형섭 목 / 김동순 윤영신 전인자
금 / 김동순 윤순자 전인자 토 / 김재일 김효순 이미셀 민미숙 이경미 정성숙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84	러시아어 예배	29	영어부	32	중등부	59
2부 예배	434	청년 선교부	64	유아부	35	고등부	57
3부 예배	332	QBC	278	유치부	32	청년 대학부	40
4부 예배	175	새벽 예배	835	중국어 교육부	19	교회 학교 예배	447
영어 예배	170	수요 기도 예배	214	유년부	95	주일 낮 장년 예배	1817
중국어 예배	329	새가족 환영회	12	초등부	78	주일 낮 총계	2264

1월 봉사위원(2월 봉사의원)

책임 장로: 김수산 장로(김원도 장로)

헌신기도	홍승룡 장로	김용생 장로	허경화 장로	차상남 장로
책임권사	장현미 권사 (박대희권사)	이정심 권사 (최정우권사)	주광자 권사 (이지희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루디아, 여호수아 주일식사: 다비다(다음주: 루디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6)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무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 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337장 /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8장 12-17절

세상에는 복음에 대한 다양한 도전과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나 어떤 분야의 권위자를 사용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용한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주도록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어려움이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292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8장 18-23절

우리의 신앙 여정과 삶이 꼭 내가 의도한 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고,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동의할 수 없는 삶의 유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전부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면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유연하고 치우치지 않는 태도가 성도다운 풍성함을 보여 줄 것이며,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453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8장 24-28절

아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완전하게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예의와 배려를 갖추고 그의 부족한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려 속에 훌륭한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올바르기 위해서는 꾸준히 내 삶을 말씀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지도와 같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갖고 살고 있나요?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370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9장 1-7절

다 설명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일이 더디다고 조바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의 백성의 부족을 채워십니다. 이것이 부족한 사람도 늘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455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9장 8-20절

개인적으로 영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심할수록 주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바울이 행한 주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복종 없이 기적과 능력만을 바라다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본문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부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19장 21-31절

복음이 증거되자 우상의 허상이 무너지고 어둠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력이요 영향력이기에 가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거룩한 도전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참 종교와 우상 숭배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쓰이고 드러져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인지 아니면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 신앙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합심 기도/ 주기도문